

19세기 후반 평안도 정주목사 이현영의 흥학과 교육실태

하 명 준*

-
- | | |
|----------------------|---------------------|
| 1. 머리말 | 3. 교육 활동의 전개와 흥학 실천 |
| 2. 향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 강화 | 4. 맺음말 |
-

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 조선 왕조가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정주목사로 부임하였던 이현영의 교육 활동 사례를 통해 당시의 교육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전통적인 敎學의 가치와 기능을 폄훼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 역량을 왜소·부실로 간주하는 견해들은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교육개혁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정립되어 식민통치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 교육의 퇴락과 부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정주목사 이현영의 흥학 활동과 실천 양상을 검토해 보면 이른바 조선후기 학교부재론이나 강학 쇠퇴론과 같은 주장들은 근거가 박약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전통 교육의 실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핵심어 : 평안도 정주, 이현영, 향교, 강학활동, 흥학, 교육실태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리말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이른바 통감부의 ‘보호정치’를 강제하면서 “보호시대=모범교육시대”라는 기조아래 전통적인 敎學의 가치와 기능을 폄훼하였다. 이를테면 고려와 조선에서 시행된 교육의 목적은 단지 관리를 양성하는데 국한되었고 시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학제 개혁은 그 어떤 것도 시도된 바가 없다고 단정했던 것이다. 또한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가 쇠미하여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였으나, 그러한 서원마저도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濫設과 黨弊를 초래하여 결국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부분 철폐되고 말았다고 설명하였다.¹⁾ 이와 같은 구도와 시각에서 조선시대의 교육 역량을 왜소·부실로 간주하는 견해들은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교육개혁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정립되어 식민 통치에 활용되었을 뿐더러 해방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 교육의 퇴락과 부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렇지만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 각 지역에 대한 통일권력을 실현시켜 나갔던 집권관료제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체제는 교육제도의 골격을 형성하고 운영하는데 여실히 반영되었다. 즉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국가경륜과 정치득실의 핵심이 교육에 있음을 천명하고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어 官學을 설립하였다.³⁾ 중앙에는 成均館과 四學을 두고, 전국의 모든 군현에는 ‘1읍 1校’의 원칙에 따라 鄕校를 설치하여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學校興’으로 표상되는 지방관의 교육행정 활동이 중요한 책무로서 강조된 것도 조선시대

1)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3-9면, 12면.

2) 이에 대해서는 김경용, 2006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16, 2-6면 ; 김경용, 2014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大東漢文學』 40, 125-128면 참조. 한편 현재 북한에서도 17세기 이후 성균관을 비롯한 정규 교육기관은 제사의식과 관련된 기능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당파싸움에 이용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육사업은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홍희유·채태형, 1998 『조선교육사』1, 박이정, 166-170면).

3)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丁未) ; 『三峯集』 권13, 『朝鮮經國典』上, 學校.

부터였다.⁴⁾ 아울러 조선후기에 이르면 중앙에서부터 행정 단위의 말단인 面里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행정력을 작동시켜 國學(중앙)-營學(도)-郡學(군·현)-面學(면·리)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천하였다. 특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서원이 철폐되면서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입지가 강화되어 국정교학의 통치이념을 향촌의 기층사회에 보급하고 관철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한 면모는 1878년 6월~1880년 12월까지 평안도 정주목사로 재임한 李鑣永(1837~1908)의 교육 사례를 통해 실체로서 확인된다. 이는 종래의 조선후기 학교부재론이나 강화쇠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현영이 목민관으로 수행한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교육사학계의 연구가 대중을 이루었다. 그것은 이현영이 30여년간 관직을 수행하면서 남긴 흥학에 관한 기록 중에서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작성한 達成鄕校講會錄의 강회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연구,⁵⁾ 역시 경상도 관찰사 재임시에 주관한 시험의 내역과 의미를 다룬 연구,⁶⁾ 조선후기 지방 행정과 학교 제도의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이현영이 관찰사와 수령으로 있을 때 운영했던 營學과 郡·面學의 몇몇 사례들을 분석한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⁷⁾ 그런데 이현영은 여타 지역의 목민관으로 활약했을 때보다 정주목사 시절에 한층 두드러진 흥학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그 교육의 실상을 기록하여 3책으로 구성된 『新安集略』(天·地·人)⁸⁾과 같은 자료들을 풍성한 교육실태의 근거로 남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현영이 목사로 근무했던 평안도 정주는 조선후기에 전국 군현에서 가장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던 교육의 중심지였고, 대한제국기 이후에는 오산학교 등의

4) 박수정, 2008 『조선후기 지방교육행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26면.

5) 김경용, 2006 『이현영의 興學활동 기록과 『達成鄕校講會錄』』, 『한국교육사학』28.

6) 채취균, 2009 『시험의 힘: 지방관의 영향력 행사와 이미지 형성-조선후기 수령의 개인기록을 중심으로-』, 『영남학』15.

7) 이성심, 2017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신안집략』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9~2010년에 이현영의 글들을 모아 『敬窩集略』(上,中,下)와 『敬窩漫錄』을 발간하였는데, 『신안집략』은 『경와집략』(상)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국편의 간행본에 의거해서 작성하였다.

설립을 통해 근대 민족교육의 자장에서 인재의 산실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기와 장소 면에서 전통 교육과 근대 교육의 연계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정주목사 이현영의 흥학 활동을 살피는 작업은 당시 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적실하게 파악하고 그 선상에서 전통 교육의 참모습을 재정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향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 강화

이현영은 세도정치가 한창이던 현종 3년(1837) 서울에서 태어나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던 융희 2년(1908) 종1품의 崇政大夫로 생을 마감한 종친 관료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字는 敬度, 號를 敬窩·東蓮이라 하였다. 諡號는 학문에 부지런했다는 의미를 담아 文貞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34세 되던 고종 7년(1870)에 종친을 대상으로 하는 庭試 文科에 급제하였는데, 합격자를 발표한 바로 그 날 청요직인 흥문관 수찬(정6품)에 제수될 정도로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후 그는 반평생에 달하는 36년의 세월 동안 내외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학문 진작에 힘썼다.⁹⁾ 이는 이현영이 자신의 관력을 돌아보며 스스로 평가한 다음의 기록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나는 官籍에 오른 이래 내직으로는 흥문관과 승정원에서 講對와 應製, 傳旨를 만드는 일을 하였고, 외직으로는 수령과 관찰사가 되어 학교를 일으키고[興學教], 장부와 문서를 처결하고, 교화를 펴고, 출척을 분명히 하는 일을 하였다.¹⁰⁾ (밑줄-인용자)

이현영은 부안·정주·의주·영흥에서 수령직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 경상도관

9) 『敬窩漫錄』 권7, 『年錄』, 541-559면. 이현영의 생애와 전반적인 관직 활동에 대해서는 김현영, 2010 『解題』, 『敬窩集略』(下), 국사편찬위원회, 547-560면 참조. 이하 각주에서는 발행처와 간행연도를 생략한다.

10) 『敬窩漫錄』 권1, 『自序』, 3면, “通籍以來 內則玉署銀臺 而講對應製焉 傳旨奉教焉 外則作宰按藩 而興學教判簿牒焉 宣風化明黜陟焉”

찰사로 복무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지방관이 되어 목민 활동을 수행했을 때 ‘興學’에 주력했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교육 관련 기록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남겼다. <표 1>은 향약·향사례·향음주례 등 사회교화적 측면이 주가 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실제 교육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문서들을 간추린 것이다.

<표 1> 이현영의 지방관 재직시 교육 관련 기록 일람

| 관직(기간) | 책명 | | 문서 제목(내용) |
|------------------------------|------|---|--|
| 전라도 부안현감 (1873.12~1875.8) | 扶風集略 | 春 | 上東面講揖禮原韻, 下帖鄉校(講規·各坊講長·選讀儒生) 외 1건, 贈居接儒生詩, 月講笏記, 興學文, 右山內講長月講通文, 題月講課程後, 上東面養士契帖序, 月講契序, 月講契立規, 樂英齋月講稷座目 |
| 평안도 정주목사 (1878.6~1880.12) | 新安集略 | 天 | 戊寅八月 日 下帖鄉校, 九月 日 下帖齋任及各面講長(講規節目), 下帖齋所 외 5건, 下帖鄉校 외 3건, 下帖鄉校及兩接所, 下帖各面講長, 本州人贈教官邊性庵集序, 講會直頭役完文 |
| | | 地 | 贈兩接所課讀諸生, 都講會日, 登北臺與校中諸生共賦, 贈校齋兩接做工諸生, 登校宮東臺 與諸生共賦, 褒貶日傍人苦待等題故謾題, 審表節祠書院 因與諸生共賦 |
| | | 人 | 勸學境內儒生文 戊寅十月 日, 各面講長 외 1건, 贈居接儒生十一月 日, 合考居接生及各面優等講生抄賞榜目, 講會席贈諸生韻, 預飭夏製居接帖 二月晦日, 課旬製帖 同日(賦題·詩題), 旬製入格榜目 五月 日, 再課旬製帖 六月 日(賦題·詩題), 再課旬製榜目, 居接生 五月 日, 勸公私兩所接生製工詩 六月 日, 罷接日 與諸生登待月亭 七月 日, 飭齋儒復設朔講帖 八月 日, 藏修所復舊序, 藏修所講會案節目, 藏修所講會序坐案, 講會席贈會員詩 九月二十五日 會員詩附, 居接生有關 代入試取題 十一月 日(賦·詩), 飭校宮及接所 禁方外人妨工帖 十一月 日, 遺逸子孫特差齋任列名, 下校齋及接所 期賞勸讀帖 十一月 日, 贈居接儒生詩 十一月 日, 再贈居接儒生詩 十二月 日, 下各面講長帖 十二月 日, 合考居接生及各面優等講生榜目 十二月二十四日, 講會席示諸生詩, 自十一月至二月四朔 校齋朔講計劃 優等榜目 二月朔日, 課旬製帖 四月初三日, 旬製榜目 八月十二日, 居接生(私接生·都會生), 飭鄉校都會訓長 交替入齋 勸讀兩所居接生帖, 等內齋任錄(鄉校: 訓長·都有司·掌議, 儒林所: 儒長·有司·掌議, 表節祠: 副詞長·掌議, 私接所: 元有司, 官瞻學: 有司, 公都會所: 訓長, 營瞻學: 有司), 講會儀註 |

| | | | |
|-----------------------------|------|---|---|
| 평안도 의주부윤 (1884.8~1886.1) | 龍灣集略 | 上 | 勸學境內儒生文(講規), 講揖禮笏記, 下帖鄉校, 下帖各面講長(賦題·詩題), 再抄旬題(賦題·詩題) |
| | | 下 | 菊製後設接傳令 |
| 함경도 영흥부사 (1888.2~1889.1) | 永府集略 | 全 | 下帖鄉校, 下帖各社鄉講長, 下帖新興齋, |
| 경상도 관찰사 (1891.2~1893.3) | 嶠藩集略 | 一 | 日錄(增廣監試, 式年監試, 文科初試, 選士白日場, 明倫堂面試諸儒施賞, 白日場, 公都會, 講學條規 分布各邑, 樂育齋考試接生詩賦, 公都會覆試, 明倫堂考講諸生, 明倫堂考講諸儒) |
| | | 二 | 別甘 各邑(樂育齋選士白日場, 校齋 矜式一鄉之地, 講學條規 均布各邑, 約會講會, 昨年捧講成冊所報, 詩賦二題 茲出送, 旬題入格人賞給條 出給, 公都會試取, 講學讀約) |
| | | 四 | 達城鄉校講會錄 辛卯十二月七日, 再講會 壬辰二月二十五日, 講會韻, 達城鄉校講會錄 壬辰十二月初四日 |
| 경상북도 관찰사 (1902.6~1903.7) | 再嶠集略 | 天 | 日錄(選士白日場, 下帖大邱鄉校, 下帖樂育齋, 大邱鄉校別補節目, 樂育齋別補節目 |
| | | 人 | 訓令 各郡(校齋 矜式一鄉之士) |

* 날짜가 없이 문서 제목이 동일한 경우 건수로 표시함.

** 김경용, 2006 『이현영의 興學활동 기록과 『達成鄉校講會錄』』, 『한국교육사학』28, 333면 수정·보완.

〈표 1〉을 보면 이현영이 정주목사 시절에 남긴 『신안집략』의 교육 관련 기록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은 향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신안집략』(인)의 표지에는 '校中件'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 그 안에 수록된 문서가 모두 향교를 대상으로 발송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주향교는 수령의 집무 공간인 관아에서 북쪽으로 1~3리쯤 떨어진 지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었다.¹¹⁾ 이러한 향교의 입지 조건은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면서 흥학에 관한 수령의 행정 지침을 지시하고 전파시키기에 효율적이었다.

이현영은 정주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로 향교에 下帖을 내려 학업을 권장하고

11)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정주향교가 州의 북쪽 1리에 있다고 하였으나, 19세기 말에 작성된 읍지에서는 치소에서 3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52, 『定州』, 學校, “鄉校…新增今移在州北一里”; 『定州牧邑誌』, 『校院』(韓國學文獻研究所 編 영인본, 1986 『邑誌』15 평안도②, 233면, “鄉校在治北三里”)].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서 관장하였다. <표 2>는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인데, 본문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제목이 다르게 쓰여 있거나 혹은 제목에 날짜가 附記된 경우가 있어 해당 문서가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을 정확히 독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2> 정주목사 이현영이 향교에 내린 교육 관련 下帖 현황

| 번호 | 날짜 | 문서제목 | 내용 요약 | 출전(책, 면) |
|----|---------------------|---|--|---|
| ① | 1878.8 | 下帖鄉校 | 행실과 학업을 익힌 자가 아니면 향교에 거처할 수 없게 함. 향교의 모든 임원들이 모여 학문·지위·명망을 갖춘 자로 校任을 추천하게 함. | 신천, 309 |
| ② | 1878.9 : 1878.10 | 下帖齋任及各面 講長 : 勸學境 內儒生文 : 定 州境內勸學文 | 암송에 치우친 공부 경향을 비판함.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향교에서 마을까지 유생을 뽑아 공부시킴. 각 面에는 교육 담당자로 講長을 임명하고 향교의 齋任과 더불어 권면하면서 매월 학생들을 시험함. 講規節目을 작성함. | 신천, 309-311 : 신인, 392-393 : 만 439-440 |
| ③ | 1879.2.28 | 下帖齋所 : 預 飭夏製居接帖 二月晦日 : 定 州鄉校飭居接生 下帖 | 4월부터 改接을 시작해서 30명의 接生을 6隊로 구성하고 한달에 5명씩 거접하게 하며, 6개월 단위로 접을 교체함. 5명의 거접비용은 접생 30명의 한달치 급료를 분배해서 부족함이 없게 함. 私接生도 이 규정에 따라서 뒤에 규정을 마련하게 함. | 신천, 322-323 : 신인, 410 : 만 440-441 |
| ④ | 1879.2.28 | 下帖齋所 : 課 旬製帖 同日 : 定州鄉校飭居接 生下帖 | 봄·여름에 해가 길 때까지는 製述을 공부한 것을 합쳐서 시험함. 수령이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詩題와 賦題를 20개씩 내어 각 面의 諸生에게 알리고 齋所로부터 답안지를 거두어 보관해서 수령이 돌아온 뒤 考試할 예정임. 선출된 사람을 面試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서 제출한 것이 발각되면 중벌에 처함. | 신천, 323 : 신인, 410-411 : 만 440-441 |
| ⑤ | 1879.6 | 下帖鄉校 : 再 課旬製帖 六月 日 : 定州鄉校 飭居接生下帖 | 지난달 旬題로 제출한 여러 편의 평가를 마치고 상을 줄 사람을 선발함. 권장하는 도리에 있어 한번 시험하고 그칠 수는 없기 때문에 詩題와 賦題를 10개씩 보내니 諸生으로 하여금 이번 달 내에 지어 바쳐서 이름을 날리고 貢舉로 추천될 바탕을 삼을 것. | 신천, 328-329 : 신인, 414-415 : 만 440-441 |

| | | | | |
|---|----------|--|--|---|
| ⑥ | 1879.8 | 下帖鄉校：飭齋儒復設朔講帖 八月日：定州飭齋儒復設朔講 下帖 | 폐지된 지 수 십년이 지난 향교의 朔講을 복구함. 삭강의 내용은 校院의 임원에서부터 接所의 제생에 이르기까지 강당 현판에 걸려 있는 講學模範 곧 율곡의 '學校模範'을 읽고 『소학』을 강하는 것. | 신천, 331-332 : 신인, 420-421 : 만 441-442 |
| ⑦ | 1879.11 | 下帖鄉校及兩接所：飭校宮及接所 禁方外人妨工帖 十一月日：定州鄉校及兩接所下帖 | 향교의 齋儒와 두 접소(公都會所, 私接所)의 接生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공부를 방해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 이를 어기면 관아에 보고할 것이며, 관에서도 장차 탐지하여 적발할 예정임을 신칙함. | 신천, 335 : 신인, 437 : 만 444 |
| ⑧ | 1879.11 | 下帖鄉校：下校齋及接所 期賞勸讀帖 十一月日：定州鄉校下帖 | 校齋의 임원들은 朔講을 복구함에 있어 암송에만 그치지 말고 체득하여 실행하는데 힘쓸 것. 성적이 우수한 齋任은 더 좋은 齋任 자리로 陞差시키고, 接生의 경우에는 재임으로 特差할 것. | 신천, 336 : 신인, 439 : 만 444 |
| ⑨ | 1880.4.3 | 下帖齋所：課旬製帖 四月初三日：定州鄉校下帖 | 많은 선비들의 여름 공부를 대비해서 각面に 詩題와 賦題를 각각 20題씩 내어 보냄. 작년의 예에 따라 齋所에서 답안지를 거두어 보관해 두었다가 考試하기를 기다릴 것. | 신천, 342 : 신인, 447 : 만 444 |
| ⑩ | 1880.4~ | 下帖齋所 | 앞으로 한달 동안 거집에 완전히 빠진 자와 석달 연속으로 삭망 분향에 불참한 자는 급료를 주지 말고 징계할 것. | 신천, 346 |
| ⑪ | 1880.4~ | 下帖齋所：飭鄉校都會訓長 交替入齋 勸讀兩所居接生帖：定州飭鄉校都會訓長 交替入齋 勸讀兩所接生下帖 | 정주목사로 재직할 지 3년동안 많은 선비들이 강경과 제술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자신이 체임된 뒤에도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향교훈장과 도회훈장을 교대로 齋에 거하게 해서 재생들의 강경과 독서를 권면하고 官에서 제공하는 支供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함. | 신천, 349 : 신인, 454-455 : 만 443 |

*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함.

** 표기 예시 : 신천, 309=『경와집략』(상), 『신안집략』(천), 309면/ 만=『경와만록』.

〈표 2〉에 따르면 정주에서의 교육행정이 향교를 중심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현영은 향교에 거처하는 학생의 조건과 校任의 자격(①), 향교의 齋所에서 居接하는 목적과 방법(③),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⑦), 매월 초하루에 실시하는 朔講의 복구와 학업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권학

(㉘), 거점생의 勤課와 학업의 내실화 방안(㉙), 교육 효과의 지속을 위한 조치와 官의 경제적 지원(㉚)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처를 강구하면서 향교에서의 교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현영의 흥학 방침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주 관내의 面里 단위에까지 착실하게 구현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 정착된 면리제의 조직 활용에 힘입은 바 컸다. 실제로 이현영은 정주 지역의 面任(風憲)과 里任(尊執), 大小民人 등에게 傳令을 내려 행정에 필요한 각종 명령을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 그것은 세금 납부,¹²⁾ 채무 등의 소송,¹³⁾ 농업 장려,¹⁴⁾ 풍속 교화,¹⁵⁾ 구휼 등을 위한 대민 파악,¹⁶⁾ 풍기 단속,¹⁷⁾ 조련 등의 군사 업무¹⁸⁾ 등 행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면·리 임에게 단순히 조세의 독촉이나 官令의 전파가 아닌 面里의 大小事와 大小民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이를 수령에게 촘촘히 보고하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¹⁹⁾

이러한 면리체계를 활용한 이현영의 목민 활동은 교육체계와 연계해서 흥학을 위한 사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1>은 정주 지역에 산재한 19개의 面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주 관아와 향교를 중심으로 사방에 면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읍치로부터 7리 이내에 자리한 東部와 西部에서부터 최대 50~60리 정도 떨어진 大明洞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²⁰⁾

12)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九月日傳令各面大小民人等, 311면 ; 同書, 傳令各面里, 346-347면.

13)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 319면 ; 同書, 傳令各面各里, 330면.

14)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 320면.

15)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 3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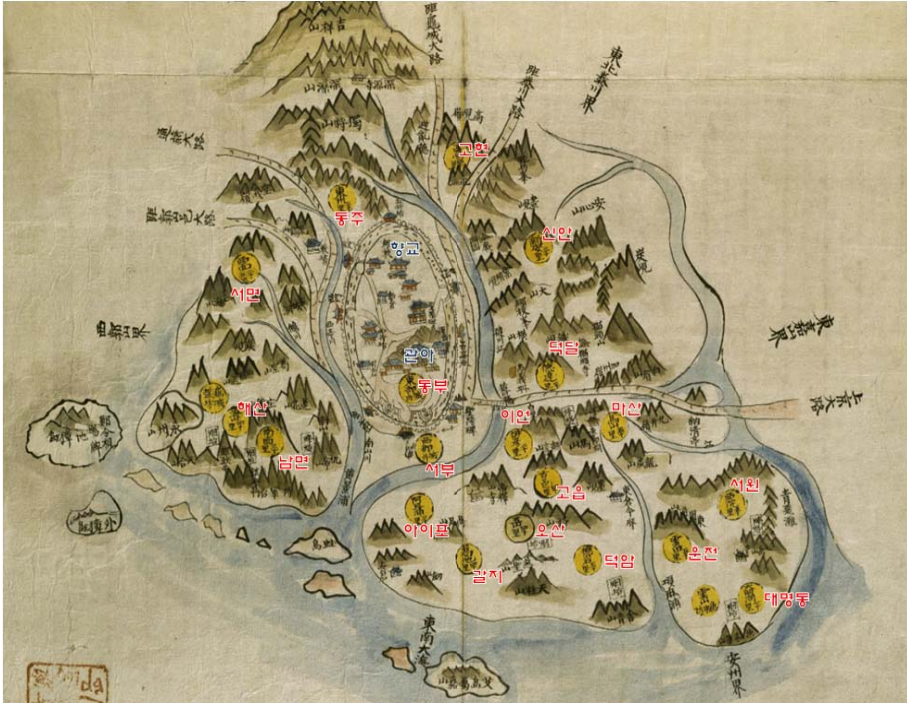
16)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尊執, 337면 ;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抄報七十以上無子鰥寡 各面傳令 一百八人 歲除日賜米肉, 445면 ; 『敬窩漫錄』6, 『外任拾略』, 定州各面抄報七十以上無子鰥寡傳令, 446면.

17)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坊, 342면.

18)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里, 345-346면 ; 同書, 傳令各面里, 347면.

19)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各面各里, 330면.

20) 定州牧의 읍치에서 각 면까지의 거리 정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海東地圖』의 註記에 의거



〈그림 1〉 정주의 향교와 講長이 임명된 19면의 위치
 (출전: 『1872년 지방지도 : 평안도』, 『정주지도』)

이와 같은 정주의 19면마다 이현영은 교육을 담당할 책임자로 <표 3>과 같이 講長을 임명하였다.

〈표 3〉 정주목사 이현영 재직시 19면의 講長 명단⁽²¹⁾

| 면 이름 | 기간 | 1878년 강장 | 1879년 강장 |
|------|----|----------|----------|
| 東部 | | 幼學 承光璉 | 前獻納 金瑛默 |
| 阿耳浦 | | 幼學 李林 | 幼學 李林 |
| 西部 | | | |
| 五山 | | 幼學 白愈行 | 幼學 白愈行 |

하였다(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5 『海東地圖』下, 定州牧, 204면).

| | | |
|-----|----------------|----------------|
| 南面 | 前司諫 白仁行 | 前司諫 白仁行 |
| 葛池 | 前執義 金持懋 | 前執義 金持懋 |
| 西面 | 進士 宋燦奎 | 幼學 柱龍紀 |
| 古邑 | 前司諫 李尙燁 | 前司諫 李尙燁 |
| 海山 | 進士 李陽圭 | 進士 李陽圭 |
| 馬山 | 幼學 盧時昇 | 幼學 盧時昇 |
| 東州 | 幼學 洪鍾熙, 幼學 金昌在 | 幼學 承翼行, 幼學 金昌在 |
| 高峴 | 幼學 文炯中 | 幼學 文炯中 |
| 西院 | 幼學 文起典 | 幼學 文起典 |
| 新安 | 幼學 承儒善 | 前正言 洪在九 |
| 德巖 | 前持平 韓圭觀 | 前持平 韓圭觀 |
| 伊彥 | 幼學 金南喆 | 幼學 金南喆 |
| 雲田 | 幼學 金炳鎰 | 幼學 金濟夏 |
| 德達 | 前正言 趙光容 | 前正言 趙光容 |
| 大明洞 | 幼學 尹尙國 | 前判校 趙廷祖 |

* 講長이 교체된 面은 음영으로 표시함.

이렇게 임명된 面講長들은 수령의 지시 아래 향교의 齋任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흥학을 실천해 갔다. 그것은 『勸學境內儒生文』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유생 전체를 포괄하면서 교육체계와 면리체계가 연동하는 모습이었다(②, ④, ⑤, ⑦, ⑨).

그런데 이상과 같이 이현영에 의해 주도된 향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는 종래 정주에서 서원을 위주로 전개되던 흥학의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²²⁾ 그 내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중종 2년(1507) 평안도에는 청천강 이남의 평양과 청천강 이북의 광산에 道 단위의 養士기구인 長都會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장도회는 道內에 있는 군현과 면리의 학교체제와는 별도로 운영된 것이었다.²³⁾ 兩亂을 겪은

21)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各面講長, 393-394면, 437면.

22) 이하 정주 지역 학교의 내력에 관한 서술은 『新安誌續編』권3, 『校院學規』(韓國人文科學院 編 영인본, 1991 『韓國近代邑誌』63, 177-179면)에 의거하였다.

23) 박종배·蓮池重代, 2017 『읍지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평양의 학교와 그 운영』, 『교육사학 연구』27, 77-78면 ; 이성심, 2017 『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영학(營學) 연구』, 『한국교육사학』39, 71면, 74면.

후에는 장도회에서 담당하던 居接을 향교로 이관해서 시행하였다. 이런 가운데 효종 6년(1655)에는 평안감사 沈澤이 15명을 정원으로 해서 절목을 갖추어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어 10명 수준에서 거접을 유지하였는데, 이듬해인 1656년에 鳳鳴書院이 창설²⁴⁾되자 거접생들을 향교에서 서원으로 옮겨 공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숙종 11년(1685)에 감사 柳尙運은 정원을 15명으로 환원시키고 田畚과 外米 등을 제공하였으며, 훈장이 施講할 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관아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어서 숙종 27년(1701)에는 감사 李世載가 5명을 더 늘림으로써 봉명서원의 거접 인원은 20명이 되었는데, 영조 5년(1729)에 감사 宋寅明이 청북 유생의 성취를 북돋우면서 추가로 新安書院에도 10명을 거접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흥학을 위해 정식화된 절목은 56條에 달하였는데, 그 뒤에도 전후의 절목과 학규를 참작해서 새로운 규정이 계속 증보되어 나갔다.²⁵⁾

이처럼 조선후기 정주 지역의 흥학은 서원이 주도하였다. 물론 향교에서의 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²⁶⁾ 서원의 거접을 매개로 한 유생들의 과거 공부에 정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시킬 만큼 성과 있게 진행되었다.²⁷⁾ 하지만 대원군 집권기에 반포된 서원철폐령에 따라 정주에서 흥학의 거점 역할을 하던 봉명서원과 신안서원이 고종 8년(1871)에 나란히 훼철²⁸⁾됨으로써 서원이 담당하던 교육적 기능과 역량은 향교로 포섭되었을 것이다.²⁹⁾ 이러한 배경에

24) 정주목사 鄭昌順은 정조 2년(1778)에 봉명서원을 중수하고 記文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院宇之建 粵在三去丙申邇來 百有餘年矣”라고 하여 봉명서원이 효종 7년(1656, 병신년)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新安誌續編』 권3, 『鳳鳴書院重修記』(『韓國近代邑誌』 63, 207면)].

25) 『新安誌續編』 권3, 『校院例規 並序』(『韓國近代邑誌』 63, 179-182면).

26) 정주향교의 東齋와 西齋는 현종 11년(1670), 영조 1년(1725), 정조 3년(1779)의 세 시기에 걸쳐 重修되었다. 향교의 동·서재는 유생들이 기숙하면서 학업을 닦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소가 꾸준히 정비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에 정주지역에서 향교의 교육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新安誌續編』 권3, 『鄉校東西齋室重修記』(『韓國近代邑誌』 63, 200-204면)].

27) 平安北道, 1994 『平北要覽』, 『定州郡』, 118-119면 ; 박현순, 2012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22-23면.

28) 『新安誌續編』 권3, 『新安書院』·『鳳鳴書院』(『韓國近代邑誌』 63, 161면·164면).

서 1878년 흥학에 남다른 의지를 지녔던 이현영의 부임으로 인하여 정주 지역에서 향교 중심의 행정체계는 강화되고 교육활동 역시 만개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3. 교육활동의 전개와 흥학 실천

1) 講規節目의 제정과 강화 위주 교육

이현영은 42세이던 고종 15년(1878) 6월의 도목정사에서 정주목사로 임명된 뒤 2년 6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1880년 12월에 체직되었다. 정주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현영은 향교를 중심처로 삼아 관할지역에서 학문 진작에 주력하였다. 그가 부임 지인 정주의 관아에 도착한 것은 1878년 7월이었다.³⁰⁾ 그리고 한달 뒤인 8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下帖을 향교에 보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첩문을 내려 보낸다. 향교는 가장 모범이 되는 곳(首善之地)으로 많은 선비들이 경유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학문을 닦아 차근차근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는 학교이다. 이곳에서부터 교화를 일으켜서 풍속을 바꾸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실로 일찍이 행실이 드러나고 학업을 공부한 자가 아니면 거할 수가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요즘에 校任이 된 자들은 매번 청탁을 통해 자리를 함부로 차지한 경우가 많으니 詩書가 어떤 글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술과 밥으로 좋은 모임을 삼고, 심하게는 이를 인연하여 험잡하는 폐단이 종종 있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생각건대 定州는 본디 經術之鄉으로 칭해져서 관리나 선비의 족속이 아님이 없으니 교임의 임무를 맡은 자는 더욱 그 행실과 이름을 닦아야 마땅하다. ... 향교에서는 諸任이 모두 모여서 내가 아닌 공으로써 널리 묻고 각별히 선택하여 반드시 문학과 지망이 있는 자로 즉시

29) 정주의 읍지에는 신안서원과 봉명서원의 전답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新安誌續編』 권3, 『新安書院田沓案』·『鳳鳴書院田沓案』(『韓國近代邑誌』 63, 281-284면). 고종조의 서원철폐령 이후에 이러한 전답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와 같이 향교나 양사재 등으로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서원의 전토와 기물 등이 향교로 귀속된 내용에 대해서는 尹熙勉, 1999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 근현대사연구』, 162-164면 ; 이춘진, 2000 「19세기 후반 호서지역 鄕校 興學節目의 성격」, 『湖西史學』 28, 33-34면 참조.

30) 『敬窩漫錄』 권7, 『年錄』, 547면, “戊寅(四十二勢) 六月 拜定州牧使 … 七月 到衙”

바꾸어 새로 교임을 임명하는 것이 옳겠다. 만일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사람이 임무에 마땅하지 않으면 추천한 사람은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로써 명심하여 거행할 일.³¹⁾

이처럼 이현영은 향교를 다른 곳보다 모범이 되는 곳이자 많은 선비들과 관계 되는 '학교'로 규정하였다. 또한 향교는 교육을 일으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므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에 종사한 자가 아니면 거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향교 운영의 직무를 담임하는 校任은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특히 정주는 '經術之鄉'으로 칭해지는 학문의 고장으로 관리와 선비가 많은 것이 특징이어서 교임의 올바른 처신이 더욱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東齋掌議 金持元이라는 사람이 瞻學庫 有司를 맡고 있을 때 공무를 빙자하여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현영은 즉시 김지원을 교임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향교의 公薦을 받아 문학과 지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임 임명 방식과 기준은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견지된 원칙이기도 하였다.³²⁾

위의 下帖에 이어서 곧바로 9월에는 향교의 齋任과 정주 19面의 講長에게도 하첩을 발송하였다. 정주에서는 선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거나 조정에서 관리로 활약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공부의 실상은 경전의 심오한 이치를 추구하지 않고 암송만을 독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학습 풍토를 쇠신하기 위해

31)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戊寅八月日 下帖鄉校, 309면, “爲下帖事 夫校宮 首善之地 而多士所關也 絃誦於斯而自有陞堂入室之序 興教自此而可見移風易俗之美 是以苟非夙著操行 早工學業者 俾不得居其所矣 挽近以來 爲校任者 每因干囑 亦多冒竊 不識詩書爲何文 反以酒食爲勝會 甚至於夤緣挾雜之弊 往往有之 豈不寒心哉 惟茲本州 素稱經術之鄉 無非搢紳之族 而爲斯任者 尤當礪其行砥其名也 … 自校中齊會諸任 毋私以公 博採另擇 必以有文學有地望者 卽爲改差是矣 若或差非其人 人不宜任 則主擬者 難免重罰 以此惕念舉行宜當向事”

32)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等內齋任錄, 456면, “挽近以來 齋任數遞 特差類多 望薦稀少 干囑成風 傾軋亦起 士趣齋規 視昔有愧 時回傾否 先生作宰 秉公慎差 專責齋薦 或賞以才 或褒以善 僥倖不襍 奔競莫售 士習歸正 學規復舊 豈不偉哉 嗚呼盛矣 二莽之間 所差渺數 題名于左 作鑑於後”

33) 당시 평안도 유림의 宗匠으로 일컬어지던 박문일(1822~1894)도 역시 평안도 지역의 선비들이 성리학 본연의 공부는 제쳐둔 채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여 詩賦의 작법이나 記誦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학풍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 이현영은 군현의 향교에서부터 面里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선발해서 강독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을 담당할 책임자로 향교에서는 齋任을 主席으로 삼고, 村에서는 오랫동안 명망을 지닌 자로 師長을 삼게 했다. 그리고 정주의 19面마다 책임자를 선정하여 講長으로 임명하는 帖을 내렸다. 이들 재임과 강장은 수시로 학생들을 권면하여 教誨의 방도를 극진히 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방법은 매월 시험을 보게 해서 태만하지 않게 하고, 경전의 깊은 뜻을 궁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입으로 외우기만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부(新工)'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었다.³⁴⁾

물론 이와 같은 흥학의 구상과 방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강의 규정과 시행 세칙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현영은 다음과 같이 전문 8조항에 이르는 『講規節目』을 제정하여 齋任과 講長에게 고지하였다.³⁵⁾

- (1) 私接과 백일장으로 뽑힌 사람은 다시 面試를 거친 뒤에 별도로 몇 명의 유생을 선발하여 校齋에 머물도록 하고 한 해가 끝날 때까지 課讀하게 한다(私接白日場被選人 更當面試後 別選幾儒 使處校齋 限歲終課讀事).
- (2) 별도로 뽑힌 講儒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官에서 마련하여 지급한다(別選講儒供饋 自官備給事).
- (3) 책자는 7書와 『小學』중에서 自願에 따르도록 한다(冊子 七書小學中 從自願事).
- (4) 각 面의 講長은 면내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공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자는 이름을 적은 책자를 만들어서 먼저 官에 보고 한다. [비록 15세 이하 40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講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講을 하게 한다](各面講長 抄出面內十五歲以上四十歲以下 願學專工者 錄名成冊 先即報來事[雖十五歲以下四十以上人 如有願講者 亦講事]).
- (5) 매월 말일에 校齋에서 공부하는 유생은 官에서 考講을 시행한다. [12월은 24일에 考講한다](每月晦日 校齋講儒 自官考講事[臘月 則二十四日考講]).
- (6) 매월 말일에 講長은 각각 그 面內의 글방에 講生을 불러 모으고 당일에 考講을

張裕昇, 2010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8-153면 ; 하명준, 2017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 경인문화사, 183-184면 참조.

34)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九月 日 下帖齋任及各面講長, 309-310면.

35)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九月 日 下帖齋任及各面講長, 310면.

한 뒤 諸生의 이름 아래에 通略粗不의 성적이 매겨진 찌를 붙여 官에 보고하는데 사사로운 정을 두지 말도록 한다(每月晦日 講長 各其面內 招集講生于學堂 當日考講後 諸生名下懸牒[通略粗不]報官 而毋或挾私事).

- (7) 12월 24일에 講長은 모든 講生을 거느리고 향교에 일제히 모이는데 官에서는 마땅히 향교의 유생들과 함께 하게 하며 반드시 읽은 책의 全秩 중에서 제비를 뽑아 考講한 후에 점수를 계산하여 상벌을 준다(臘月二十四日 講長率諸講生 齊會于校中 而自官當並與校儒 必以所讀全秩中 抽籤考講後 計劃賞罰事).
- (8) 향교에서의 모임에 데리고 갈 講生은 그 전달 고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정하는데 官에서 기한 전에 미리 지명하여 와서 모이도록 한다(率會講生 則當計其前朔牒劃之優者 自官當先期指名來會事).

위의 절목에 따르면 백일장과 面試 등을 거쳐 선발된 유생들은 연말까지 校齋에 머무르면서 경전을 강독하는 居接을 하게 하였다.³⁶⁾ 이 때 거접에 필요한 물자와 경비는 官에서 제공토록 하였다. 학습할 교재는 四書三經과 『小學』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 수령은 향교의 유생들을 考講하고, 講長들은 이 날에 해당 면의 講生들을 면 단위의 학교인 學堂에 불러 모아 고강한 뒤에 通略粗不의 네 단계로 성적을 평가해서 官에 보고하게 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24일에 面講生과 향교유생이 향교에서 모여 그동안 독서한 책의 全秩을 평가받고 성적에 따라 상벌을 받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관 주도의 시험 평가가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절목의 내용은 하첩이 내려진 지 한 달만인 1878년 10월에 『勸學境內儒生文』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전체 유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차 반포되었다.³⁷⁾ 『신안집략』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정주에서는 『講規節目』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령 주도의 月講이 달마다 실천되었다.³⁸⁾ 이렇듯 강독의 점검 기간을 한 달에 한

36) 이현영은 정주목사가 되기에 앞서 부안현감으로 근무할 때도 향교에 하첩을 내려 “경전을 강독하는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이 되니 사대부라면 더욱 하루라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夫講經傳 是修齊治平之本 而士大夫尤不可一日廢之)”라고 하여 경전의 課讀을 강조하면서 講規를 제정한 바 있다[『敬窩集略』(上), 『扶風集略』(春), 下帖鄉校, 101면].

37)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勸學境內儒生文, 392면.

38)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講會席贈諸生韻, 398면, “南州月講又西方 先自校齋至熟庠 敢效循良興教化 只要勸課習經章 討論幾日暇牀牒 供接三冬捐廩糧 若使年年能繼此 新安

번으로 정한 이유는 제생들이 오고가는 데 드는 노고와 시간의 허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³⁹⁾ 講會를 하는 席上에서는 수령이 먼저 흥학을 주제로 首唱하면 그 자리에 참여한 제생들이 次韻하여 호응하였는데, 그 기록을 보면 정주 지역 학교의 齋任으로 鄉校訓長, 儒林所儒長, 齋長, 儒林元有司와 有司, 官瞻學有司, 表節祠長, 營瞻學有司, 東齋掌議, 儒林掌議 등이 망라되어 있었고 面講長과 講生도 동참하고 있었다.⁴⁰⁾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 성취한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講會를 개최하여 考講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향교 거점생과 각 면의 諸生을 시상하였다.⁴¹⁾

한편 講習은 비단 유생만이 아니라 軍門의 諸任에게도 적용되었다. 정주는 ‘文鄉’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雄府이고 獨鎮이었다. 이현영은 名將과 名武는 兵法에 관한 책을 익히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정주의 軍任들에게 반드시 군대 조련법을 기술한 『兵學指南』을 읽도록 지시하고, 그 강습의 勤慢을 살펴서 상벌을 시행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⁴²⁾

2) 향교의 朔講 및 藏修所 講會 복구

이현영은 부임 초기에 『講規節目』을 반포함으로써 강학과 강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흥학을 실천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그는 수십년 동안 폐지된 채로 있던 향교의 朔講을 복구하여 강학활동을 한층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1879년 8월 이현영은 향교 講堂의 처마에 ‘講學模範’이라고 써진 현판을 발견하였다. 그 내용은 매월 초하루 아침에 문묘를 배알하고 예를 마친 뒤에 校院의 유생들이 차례대로 명륜당에 앉아서 율곡의 학교모범을 읽고 『소학』을 강독하는 것이

亦一魯齊鄉 右東蓮”

39) 『敬窩集略』(上), 『扶風集略』(春), 下帖鄉校, 101면.

40)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講會席贈諸生韻, 398-402면.

41)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合考居接生及各方面優等講生抄賞榜目, 397-398면 ; 同書, 合考居接生及各方面優等講生榜目 十二月二十四日, 443면, “盧德深[齋任賞] 金持賢[齋任賞] 鮮于鎰[齋任賞] 李達洙[私接賞] 金仁學[私接賞] 鮮于木翼[紙筆賞] 洪淳默[紙筆賞] 李龍乾[紙筆賞] 李冕圭[紙筆賞] 承鎮夏[紙筆賞] 金周衡[紙筆賞]”

42)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傳令軍門諸任, 323면.

었다. 이러한 삭강이 폐지된 채 수 십년이 지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현영은 향교의 齋儒에게 삭강의 복설을 신칙하는帖을 내리고 강학모범의 條規를 준행해서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⁴³⁾ 그리고 다시 석달 뒤에 향교와 接所에 첩을 내려서 복구한 삭강의 학습 방식에 대해 신칙하였다. 이에 따르면 校齋의 임원들은 삭강시에 암송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몸소 체득하여 실행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강독을 종료할 때 성적이 우수한 齋任에게는 더 좋은 재임 자리로 陞差시키고, 接生의 경우에는 재임으로 特差할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⁴⁴⁾ 이와 관련해서 <표 4>는 이현영의 지시로 복설된 삭강의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校齋의 삭강 우수자 명단과 시상 내역⁴⁵⁾

| 삭강 기간 | 성적우수자 | | 시상 종류 | 비고(『新安集略』(人) 等內齋任錄) |
|----------------|-------|----------|-------|---------------------|
| 1879.11~1880.2 | 齋任 | 安燦國 | 齋任 陞差 | 儒林所 掌議 安燦國 仍前任 |
| | | 李用圭 | | 鄉校 都有司 李用圭 以朔講優等賞差 |
| | | 卓宜默 | | 鄉校 都有司 卓宜默 以朔講優等賞差 |
| | 私接 | 鄭基周 | 私接 特差 | . |
| | | 金奎鎬 | | . |
| | | 李龍乾 | | . |
| 1880.3~1880.9 | 齋任 | 石采英 | 齋任 陞差 | 鄉校 都有司 石采英 以朔講優等賞差 |
| | | 車南鎭 | | 儒林所 掌議 車南鎭 |
| | | 吳源楚(西齋任) | | . |
| | 私接 | 金奎鎬 | 私接 特差 | . |
| | | 金宗璉 | | . |
| | | 李龍乾 | | . |

43)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鄉校, 331-332면.

44)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鄉校, 336면. 정주 지역의 齋任 자리에는 鄉校(訓長·都有司·掌議), 儒林所(儒長·有司·掌議), 表節祠(副祠長·掌議), 私接所(元有司), 官瞻學(有司), 公都會所(訓長), 營瞻學(有司) 등이 있었다(『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等內齋任錄, 456-458면).

45)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自十一月至二月四朔 校齋朔講計劃優等榜目, 446면 ; 同書, 自三月至九月七朔 校齋朔講計劃優等榜目, 450면.

〈표 4〉에 따르면 우선 이현영의 지시대로 삭강이 복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삭강은 1년 중 11월에서 2월까지와 3월에서 9월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0월만 삭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기간에 매년 公都會가 열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⁴⁶⁾ 표에서는 기간별로 삭강이 종료되고 성적우수자에게 포상을 하였을 때 현직 재임은 대체로 賞差가 되거나 기존의 자리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오원초의 경우는 東齋보다 하위의 西齋 교임이었던 까닭에 陞差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사접생 출신들은 한 사람도 재임으로 특차가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는 이현영의 흥학 의지와는 별개로 재임 또는 상위 재임으로 진출하는 장벽이 그만큼 강고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현영은 향교의 삭강 뿐 아니라 정주 유림의 강학처로 내력이 깊은 藏修所의 강회를 복구하는데도 앞장섰다. 장수소는 정조 1년(1777)에 白仁煥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백인환은 당시 평안도 출신으로는 드물게 당상관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으므로 정주에서 장수소의 강학활동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이현영은 이러한 장수소의 강회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10여 년전부터 아예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1879년 9월에 강회를 재건하고 절목을 제정하여 규모 있게 운영되도록 주선하였다.⁴⁷⁾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복구된 장수소 강회의 都講長을 맡아 전체적인 강회 운영을 주도하였다. 당시 장수소의 회원은 모두 212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관직자와 문과급제자 26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유림의 호응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⁸⁾ 이렇게 복구된 장수소에 대해 이현영은 公所直의 煙役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例라고 하면서 장수소의 講會直에 대한 煙戶雜役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頃役完文’을 내려주기도 하였다.⁴⁹⁾

46) 『敬窩漫錄』 권7, 『年錄』, 547-548면, “十月…都會初試面試 比較試取”. 영조 36년(1760) 각道の 공도회를 10월로 정해 실행하라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속대전』에는 관련 규정이 정식화되어 수록되었다(최광만, 2008 『17세기 公都會의 運營과 性格』, 『한국교육사학』30, 159면).

47)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藏修所復舊序·藏修所講會案節目, 425-426면 ; 하명준, 앞의 책, 90-91면.

48)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藏修所講會序坐案, 426-430면.

3) 旬製의 시행과 製術 학습

전술하였듯이 이현영은 강학 위주의 교육을 주도하고 중단되었던 강회를 복구하였다. 그런데 강학과 강회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형식과 절차를 갖추기 위한 번거로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관 주도의 강학 활동에서는 수령이 임지를 비워야 할 경우 面講을 할 수 없는 난점이 있기도 하였다. 고종 16년(1879) 2월에 이현영은 말미를 얻어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이에 그는 자리를 비우는 동안 勸學에 장애가 될까 염려하여 유생들에게 課題를 부과하고 答案지를 회수하는 旬製의 시행을 지시하였다. 여기에는 봄과 여름까지의 製術 공부를 독려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詩題와 賦題를 각각 20首씩 미리 출제하여 각 面의 제생들에게 알리고 그 答案지를 향교의 齋所에서 거두어 두었다가 관아로 돌아오면 考試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순제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글을 제출해서 선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므로 그는 일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재차 자신의 면전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부정할 일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였다.⁵⁰⁾ 이렇게 해서 실시된 순제는 그 해 5월의 榜目을 통해 詩·賦에서 각각 11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⁵¹⁾

또한 이현영은 한달 뒤인 6월에 향교에 하첩을 발송하여 다시 旬製를 거행한다는 사실을 제생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학문을 권장하는 도리에 있어 한번만 시험을 보고 끝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에는 詩題와 賦題를 각각 10首씩 출제하여 6월 안으로 答案지를 제출하도록 했다.⁵²⁾ 그 내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49)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講會直頭役完文, 349면.

50)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下帖齋所, 322-323면.

51)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旬製入格榜目, 413면.

52)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鄉校, 328-329면.

〈표 5〉 旬製에서 출제된 詩·賦의 출제 내역⁵³⁾

| 詩題 | 賦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盖取諸乾坤[周易] · 聖人之心見於書 猶化工之妙著於物[書傳] ·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邦家[詩傳] ·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中庸] · 君子 不出家而成教於國 · 於山見嵩華 於水見黃河 於人見歐陽公[上韓太慰書] · 懸鐘鼓磬鐸韶 以待四方之士[夏禹氏] · 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不治 ·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孝經] · 人和 從太守遊而樂 而不知太守之樂其樂[醉翁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易繫] · 作朕股肱耳目[書傳] · 思皇多士 生此王國[詩傳] · 顏子克己 如洪爐點雪[論語] · 使有菽粟如水火[孟子] · 蹶起着公服[司馬溫公] · 適有孤鶴橫江東來[東坡] · 對酒設樂 必雅歌投壺[蔡遵] · 公事有陰陽[張詠] · 諸君何不爲君子[小學]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詩題와 賦題에서 인용된 서적은 『小學』·『論語』·『孟子』·『中庸』·『書傳』·『詩傳』·『孝經』·『周易』·『易繫』등의 經書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답안지 역시 수령의 考試를 거쳐 방목으로 합격자의 명단을 발표하였다.⁵⁴⁾ 이상과 같은 순제는 1880년 4월에도 前年の 예에 따라 동일한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거듭 시행되었다.⁵⁵⁾

4) 거접의 규정과 勤課 점검

안정적인 흥학의 실천을 위해 거접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현영은 향교의 齋所에 接生을 두도록 한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하나는 거접하는 유생들이 학업을 하는 일에 마음을 오로지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문을 익히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온전한 거접의 의미와 규정이 전폐되어 오로지 料米에만 관심을 두고 함부로 참여하는 무리가 많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이에 이현영은 충실한 거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 방식을 보

53)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鄉校, 329-330면.

54)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再課旬製榜目, 415면.

55)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齋所, 342면.

면 4월부터 改接을 시작하는데, 30명의 접생을 6隊로 나누고 한 달에 5명(1隊)씩 돌아가면서 거접하게 하며, 6개월을 단위로 接을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정 기간동안 인원을 한정시켜 교대하는 '輪番居齋'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재정 부족으로 한꺼번에 30명을 거접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⁵⁶⁾ 이들 거접생에게는 매달 말일에 官에서 근만을 시험하여 상벌을 시행토록 하였다. 5명의 거접 비용은 접생 30명의 한달치 급료를 나누어 배정하였는데 장차 私接生에게도 이러한 거접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⁵⁷⁾

거접생들의 勤課를 점검해서 학업을 권장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현영은 公都會生과 私接生이 한달 내내 거접을 하지 않다가 끝나는 달에 단지 급료만을 받아가는 행태를 두고 접생의 事體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달 동안 완전히 거접에 빠진 자와 석달 연속으로 朔望 焚香에 불참한 자는 급료를 주지 말고 징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⁵⁸⁾ 조선후기의 향교나 서원에서는 삭망 분향이 끝나면 유생들이 모여서 경전을 강독하는 通讀을 시행하였고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하면 강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⁵⁹⁾ 따라서 이현영의 저러한 조치 역시 강학활동을 강화하는 방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현영은 거접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꺾석이 생기면 詩·賦·『小學』 등으로 시험을 보아 빈자리를 채워 넣어 일정한 규모의 거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⁰⁾ 이와 더불어 거접 중이거나 파접을 하는 날에 거접유생과 시를 주고 받으며 학업

56) '輪番居齋' 방식의 강학 운영은 교육 기관의 재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 예로 조선시대 서원 중에서 官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던 소수서원은 16~17세기에는 사계절 내내 居齋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官의 지원이 줄어들어 재정난을 겪은 18세기에는 '三冬居齋'이라 하여 10월에서 12월까지 겨울 석 달 동안만 거재를 개설하거나, 또는 한 달이나 보름 등 일정 기간을 단위로 인원을 한정하여 유생들이 쉼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入齋하는 '輪番居齋'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김자운, 2015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의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110면).

57)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齋所, 322-323면.

58)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齋所, 346면.

59)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360-362면.

60)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居接生有關 代入試取題 十一月 日, 436면.

을 독려하였다.⁶¹⁾ 고종 17년(1880) 12월 자신의 체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으로 齋所에 하첩을 보내어 향교훈장과 공도회훈장이 교대로 居齋하도록 함으로써 거점생들의 강경과 독서를 권면하게 하고, 거점생의 支供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이후에도 자신이 재직시에 성취한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⁶²⁾

이상에서 19세기 후반 정주목사로 부임한 이현영의 흥학 활동과 실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현영은 정주목사로 있을 때 흥학에 진력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목민 활동은 지역 유생의 호응을 얻어 '학교흥'의 모범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조선이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정주목사를 역임한 246명 중에서 '興學碑'가 세워진 수령은 오직 5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현영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흥학책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단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⁶³⁾ 실제로 정주의 士民들은 흥학을 이유로 수차례 이현영의 仍任을 감영과 조정에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다.⁶⁴⁾ 고종 19년(1882) 평안감사 閔泳緯가 수령의 치적을 묻는 고종의 물음에 “전전 정주목사 이현영이 청렴결백하고 주밀하며 상세할뿐더러 훌륭한 업적이 있었는데, 그가 교체되어 떠나간 이후에도 고을의 백성들 중에는 아직까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⁶⁵⁾ 이는 당시 이현영의 흥학 실천이 정주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며 그 교육실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후기

61) 『敬窩集略』(上), 『新安集略』(人), 贈居接儒生 十一月 日, 394-397면 ; 同書, 罷接日 與諸生登待月亭 七月 日, 419-420면 ; 同書, 贈居接儒生 十一月 日, 439-441면 ; 同書, 再贈居接儒生詩 十二月 日, 441-442면.

62)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下帖齋所, 349면.

63) 『新安誌續編』권2, 『官員』(『韓國近代邑誌』63, 91면-116면). 흥학비가 세워진 정주목사 5명은 金偉, 孟胄瑞, 南正午, 李鑣永, 李漢永이다.

64) 『敬窩集略』(上), 『新安集略』(天), 定州民人等呈巡營, 353-354면 ; 同書, 州民等呈籌司, 356면 등.

65)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2월 8일(甲子), “上曰 守令果誰善治乎 泳緯曰 前前定州牧使李鑣永 廉白周詳 優異著績 遞來後邑民 尙有去思之切矣”

이래의 학교부재론이나 강학쇠퇴론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는 바이다.

4. 맺음말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처지에서 제 나라의 역사를 敎習할 수 없었다. 국사는 일본사였고, 역사교육은 植民性的의 체질과 사상·정서를 담은 채 남의 史跡을 교수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과 문헌고증의 풍토가 만연하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학은 거의 압살될 지경이었다. 한국의 歷史性은 정체·타율·후진·결핍으로 강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세기 후반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교육 양태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시선도 역시 일제에 의해 심하게 훼손·오염되고 말았다. 그 귀착지는 조선후기에는 학교다운 학교가 없었다거나 강학 활동이 쇠퇴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주장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평안도 정주목사로 재직한 이헌영의 흥학 활동과 실천 양상은 당시의 교육 실태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적어도 이헌영의 교육 관련 자료와 흥학 실천 사례들은 전통 교육의 '부재'와 '쇠퇴'를 단정하는 것이 아직은 무모하고 선부르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고종 28년(1891) 12월 7일, 이헌영은 경상감사 재직시 6살된 아들 李秀一을 달성향교 강회에 童蒙으로 참여시켜 『논어』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한 구절을 講하게 했다.⁶⁶⁾ 이는 이수일에게 남긴 다음의 말에서처럼 타고난 신분보다 후천적인 배움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66) 『敬窩集略』(下), 『嶠藩集略』(四), 達城鄉校講會錄 辛卯十二月七日, 59면, “童蒙…李秀一 [年六歲] 講論語學而時習一節”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서 아는 것이다. 성현의 책을 배워 덕에 나아가고 도를 즐겁게 여긴다면 (자신도) 성현이 될 수 있다. 문장가의 책을 배워서 전심으로 힘을 쏟으면 문장가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도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일 중에 본받을 것과 징계할 것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책은 사람에게 음식이나 의복과 같아서 하루라도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진실로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어 얼굴 생김새까지 밋살스럽게 되니 비록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어도 사람의 무리에 낄 수 없다.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비록 벼슬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고 무식하면 사람들이 모두 업신여기지만,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도 학문을 좋아하고 박식하면 사람들이 모두 아끼고 공경하니 배움과 배우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겠는가?⁶⁷⁾ (밑줄-인용자)

그런데 배움에 귀천이 없고, 배움으로 오히려 귀천이 만들어진다는 이현영의 저와 같은 교육 사상은 19세기 후반 우리 전통 교육의 실상과 확장성을 가늠케 하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주목사 이현영이 향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朝野에서 긍정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령의 개인적인 흥학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흥학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교육 실태를 적실하게 파악하는 일은 더욱 거시적인 과제로 남겨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논문투고일(2018. 11. 11),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1. 30)

67) 『敬窩漫錄』 권7, 『雜著』, 兒訓, ‘右懋學業’, 512-513면, “人非生而知之 必學而知之也 學聖賢之書 而進德樂道 則可以爲聖賢 學文章之書 而專心着力 則可以爲文章也 人道之當行當爲 人事之可法可懲 皆載此書 書之於人 猶飲食衣服 而不可一日不學 ... 苟不學焉 則蠢蠢質質 面目可憎 而雖具人形 不齒人類 豈不寒心哉 雖貴顯之人 而不學無識 則人皆譏侮之 雖微賤之人 而好學博識 則人皆愛敬之 其學與不學 豈非雲壤之別乎”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三峯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海東地圖』, 『定州牧邑誌』, 『新安集略』, 『扶風集略』

2. 논저

- 김경용, 2006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
 _____, 2006 『이헌영의 興學활동 기록과 『達成鄕校講會錄』』, 『한국교육사학』 28.
 _____, 2014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大東漢文學』 40.
 김자운, 2015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박수정, 2008 『조선시대 지방교육행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배·蓮池重代, 2017 『읍지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평양의 학교와 그 운영』, 『교육사학연구』 27.
 박현순, 2012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이성심, 2017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 『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영학(營學) 연구』, 『한국교육사학』 39.
 張裕昇, 2010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광만, 2008 『17세기 公都會의 運營과 性格』, 『한국교육사학』 30.
 채취균, 2009 『시험의 힘: 지방관의 영향력 행사와 이미지 형성-조선후기 수령의 개인기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15.
 하명준, 2017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 경인문화사.
 홍희유·채태형, 1998 『조선교육사』 1, 박이정.

Abstract

Provincial Governor Yi Hŏnyŏng(李鑣永)'s Activities on
Scholarship Development(興學)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P'yŏngando Chŏngju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Chosŏn

Ha, Myung-jo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itional state of educ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Chosŏn by examin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Yi Hŏnyŏng, who was the provincial governor appointed to Chŏngju, P'yŏngan-do. After enforcing the protectorate treaty in 1905, Japan constantly initiated campaigns intended to depreciate the value and functions of traditional education and scholarship existing in Korea. The concept regarding Chosŏn's educational capacities as undersized and insufficient was frequently employ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s a justification for educational reforms, and even until today, this idea continuously function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regarding the deterioration and depression of traditional education as a fait accompli.

However, a review on educational development and practices l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Yi Hŏnyŏng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ndicates that theories such as 'absence of school' and 'decline of academics' in the late Chosŏn period are groundle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xplore new approaches and awareness on the reality of traditional education.

Key words : P'yŏngan-do Chŏngju, Yi Hŏnyŏng, Hyanggyo, Education and Scholarship Activities, Scholarship Development, Educational Condition